IFES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브리프
RELATE TIMELY INFORMATION ON NEWS RELEVANT TO NORTH KOREA

NO.2021-10 2021.03.31

북한의 군사행동 재개 평가와 전망

김 동 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핵센터장
donykim@kyungnam.ac.kr

이전 발행자료

› [IFES BRIEF 2021-06]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개최의 정치적 의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상범 교수

› [IFES BRIEF 2021-07]
「중국해경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

› [IFES BRIEF 2021-08]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 평가 및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 [IFES BRIEF 2021-09]
한미 간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에 관한 소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재욱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03053)서울 종로구 북촌로 15길 2
TEL. (02)3700-0700
FAX. (02)3700-0707
http://ifes.kyungnam.ac.kr
E-Mail: ifes@kyungnam.ac.kr

□ 2021년 새로운 한반도 위기의 시작?: 2020년 6월의 데자뷔(deja vu)

○ 북한의 군사행동 재개로 한반도 긴장감 고조

- 1년여 만에 3월 21일 순항미사일(비공개) 및 25일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 **2020년 3월 29일 원산 인근에서 국방과학원의 초대형방사포(KN-25) 시험 사격, 4월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 미국은 유엔제재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추가 행동을 언급한 상황

○ 이미 군사행동 재개 이전인 3월 15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관련 인사들이 연이어 담화 발표

-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장(17일),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26일), 조선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28일) 모두 김여정 담화와 연속선상에서 대남, 대미 강경 메시지에 일관성 유지

- 지난 15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교류협력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와 함께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를 언급

  *** 2020년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

- 3월 30일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로 추가 담화를 발표하여 지난 2020년 6월 상황 재현 가능성

  ***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담화를 시작으로 중앙위 국제부 대변인 담화(6.4), 중앙위 통전부 대변인 담화(6.5), 리선권 담화(6.12), 장금철 담화(6.12), 권정근 담화(6.13) 그리고 다시 김여정 담화(6.13)로 이어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6.16)**

□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군사기술적 평가

○ 3월 21일 아침 서해안 평남 온천(온천비행장 추측)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 없이 우리 군도 사거리, 고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고만 발표

- 북한은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중장거리순항미사일 개발 성과를 언급한바 지난해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처음 공개한 신형 지대함미사일(KN-27/사진1)일 가능성이 높음. 발사관이 4개인 기존 지대함미사일(KN-19)과 비교해 발사관이 8개로 늘어나 동시다발 공격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17년 6월 8일 동해 원산 인근에서 김정은의 참관 하에 지대함 순항미사일(KN-19)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함. 이날 발사한 지대함미사일은 그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경축 열병식에 등장(사진2)**



사진1. 신형 지대함미사일(KN-27)



사진2. 지대함미사일(KN-19)

- 이번에 발사한 것이 75주년 열병식에 나온 신형 지대함미사일(KN-27)이라면 기존의 지대함미사일(KN-19/러시아의 Kh-35E)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미사일 자체의 성능 개량보다 발사차량만 Kh-35E의 발사관을 8개 탑재한 러시아의 발사차량 Bal-E(사진3)로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음.



사진3. Bal-E Mobile Coastal Missile System with Kh-35

- 이번 발사가 지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반드시 지대함순항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지대지순항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임.

  *** 북한은 지난 2017년 6월 시험발사에서 미사일 2발이 2km내 저고도로 200여km를 날아가 해상에 설치된 폐선박에 각기 다른 방향에서 명중하는 사진(사진4)을 공개함. 보도를 통해 초저공 장거리 순항비행 체제, 여러 가지 비행경로, 탄두의 목표 포착 및 유도 정확성, 목표 진입 시 급격한 고도 이행 능력 등을 언급해 마치 비행기처럼 방향을 전환하는 변침점(way point) 기능을 가지고 있고 표적에 명중 시 다양한 각도로 충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사진4. 2017년 지대함미사일(KN-19) 표적(폐선) 명중 장면

○ 3월 25일 아침 3월 21일 아침(07시 06분경과 07시 25분경)에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주관한 국방과학원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라고 보도함.

- 북한은 신형전술유도탄에 대해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해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밝혀 제8차 당 대회 열병식(1.14)에 최초 공개된 탄두 부분이 커지고 발사차량의 바퀴가 4륜에서 5륜으로 증가해 길이도 길어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사진5)으로 추정



사진5. 신형전술유도탄(KN-23 개량 추정)



사진6.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 북한이 신형의 탄두 중량을 2.5톤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현무4(탄두 2톤, 사거리 800km)을 의식한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난 8차 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언급한 만큼 이와 연결된 것으로 보임.

  *** 탄두가 무거워지고 "수차례에 걸치는 발동기지상분출시험과 시험발사과정을 통하여 개량형고체연료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밝힌 점에서 고체엔진의 추진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 향후 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비행거리를 600km라고 밝혀 우리 군의 발표 450km와는 차이가 있으나 중국과 접경인 압록강부근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사거리 안에 포함되고 재래식 탄두 2.5톤이더라도 우리의 원자력발전소나 화학정류시설을 파괴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 한반도 환경에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체계임.

- 신형탄도미사일에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하였다"며 이미 북한 미사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부담

○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해 군사기술적으로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됨.

-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보면 연구시설과 공장에서 기존 모델을 개량해 시험발사에 필요한 시제품(6~10발)을 제작하는데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함.

- 이번에도 1년 정도 발사에 간격이 있었던 것도 기존 모델의 개량형 시험발사용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간으로 보이며 그 결과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기존 모델과는 다른 향상된 성능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운용성과 유지를 위한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보유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가 비현실적으로 과다함. 북한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전력화를 위해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신무기 같이 보이기 위해 기존무기의 형체와 제원을 약간씩만 변형하는 대내외적으로 시위용 버전 변형 가능성도 있어 이를 우리나 서방 언론이 과도하게 엄청난 무기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북한의 군사행동 재개와 연속 담화 발표 의도 및 향후 전망

○ 대남 대미 위협 및 대북정책 변화를 위한 단계적 압박 메시지로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명력이 부족

- 북한은 18일 한미 연합 훈련 종료 후 사흘 뒤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점과 2+2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와도 연관시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이나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 압박메시지로도 볼 수 있음.

- 지난 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연합 훈련을 비난하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서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를 날린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음.

○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추가제재에 대한 우려나 북미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에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북한의 군사행동 재개는 바이든 정부가 유연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양보하기보다 오히려 더 단호해지고 제재를 더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도 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 북한은 북미대화에 대한 희망이나 바이든 신행정부를 압박해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리병철 비서 담화에도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것이 아니다”라며 북미대화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함.

○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26일), 조선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28일) 그리고 3월 30일 김여정 부부장의 추가 담화 모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당화하고 미국과 남한, 유엔을 비난한 것은 방어적이라기보다 경제에 매진하기 위한 공세적 외교(자주)와 국가방위력 강화(자위)의 일환으로 해석

- 북한은 대북 제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상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함.

- 이는 미국이 이념과 가치를 강조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미 국제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임.

○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바처럼 국가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무력의 현대화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 군사행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자신들의 계획표에 따라 신무기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시기적으로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 대회 이후 2월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와 중앙군사

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 등을 통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방향을 확고히 하고 1,2월 두달간 경제분야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군사행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해 제시한 것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지난 8차 당 대회에서 《국방공업의 비약적인 강화발전을 위한 전략적과업》으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의 촉진,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1만 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군사정찰위성의 운영, 500㎞ 전방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의 개발 등을 제시함.

- 리병철 비서는 담화에서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미국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권리”를 언급해 단순히 단거리 전술유도탄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LBM과 ICBM의 시험발사도 할 수 있음을 밝힘.

○ 대미관계 상황이 악화되거나 UN, 미국의 추가제재 등의 압박이 가중될 경우, 3월 15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교류협력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 그리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와 관련된 공식 발표나 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IFES 브리프 2021-10 **2021년 3월 31일**

발행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2 (03053)
전화: (02)3700-0700 팩스 | (02)3700-0707
홈페이지: http://ifes.kyungnam.ac.kr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IFES브리프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수시 발간하는 e-출판물입니다.